"선거때 마음가짐 잊지 않을 것"

집행부 축소, 학생회 간부 공개모집 고려
학생들 동의 없는 계열화 있을 수 없어

인터뷰/배정기 27대 서울 총학생회장 당선자

제27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배정기(정경대 신방3)군을 만나 당선 소감과 95학년도 총학생회 사업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선거의 모습이 복지에 관련된 공약이나 단대문제에 대한 공약 몇개로 이루어진다면 기성 정치와 다를 바 없겠죠. 대학선거는 대학인이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8천5백 경희인의 이러한 시대정신이 표출돼 진행되었기에 만족합니다. 내년에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학선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항상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라는 마음으로 총학생회장의 일에 임하겠습니다. 학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생회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전의 학생회는 집행부가 비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회가 동아리화 되고 학생회 간부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생각이 유리되었다고 봅니다. 학생회는 학생회 자체로 떨어져 있어선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원의 수를 줄일 것입니다. 학생회간부의 공개모집도 고려하겠습니다.

—현재의 대학문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모임 문화 정착 돼야

=커피 안 마시고, 쓰레기를 분리 수거 한다고 해서 대학 생활문화가 풍요로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문화는 대중문화와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학문화는 대중문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대중문화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80년대엔 민중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학생 개인의 욕구는 억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개인의 욕구가 분출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대학인만의 작은 소모임 문화가 정착되어야겠죠. 학생회에선 우선 학회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회 교양지를 발간하고 학회장 간부 교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의 경우 학과 계열화문제로 한창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학과 계열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운동 변화발전

=학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과의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생들은 정작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원캠퍼스에서 산업생을 계열화해 뽑겠다는 것도 마찬가지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학과 계열화를 도입함에 있어 학교측 행정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논의없이 계열화를 도입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학문적 원류가 다른 과를, 이를테면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통합식으로 계열화 하지 말아야 하고, 교수충원 등 학과 계열화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서울에 있는 학과들이 절대 수원으로 내려가선 되지 않습니다. 계열화는 긍극적으론 학부제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일을 하게됩니까.

=서태지도 김영삼도 통일에 대해 고민은 합니다. 특히 광복 50주년을 맞이 하는 내년엔 모두가 통일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통일은 일부계층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제 모두가 사상과 이념을 떠나 통일을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조국통일위원회가 학생들만의 운동기구였다면 새로 구성될 통일준비위원회는 학생 뿐 아니라 교수, 직원을 포괄해 통일강연, 통일포럼등의 행사들 개최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곧 총학생회 업무를 이어받을텐데요.

=5일과 6일 각과별로 2학년을 한 명씩 추출해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선거 평가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27대 총학생회의 업무는 오는 13일 총학생회실에 입주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선거평가 설문조사

배정기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학생들이 혼자서 사업을 벌이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며 "앞으로 학생회의 본모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학우들도 학생회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과 칭찬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근본적 대응책 없는 WTO비준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의 굳은 손에서 한국 농업정책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한승오 기자〉

"수매가동결·UR비준 목숨 위협"

농민대회 1만5천명 참가…청와대 향하던 시위자 모두 연행

'쌀생산비 보장과 WTO 비준 반대 94전국농민대회'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등 11개 단체 주최로 지난 29일 1시 보라매 공원에서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전농회장 윤정석씨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농어촌발전대책이 농민에게서 한가닥 희망마저 앗아가 버리고, 수매가 동결및 대책없는 UR비준의 강행은 이제 농민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9백50만석 수매는 극심한 가뭄속에서 어렵게 농사지었던 농민들의 피와 땀을 부시하는 처사이며 UR이행법안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UR준비는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풍물패를 앞세워 오후 4시 '직접소득지불제도 도입' '수매가 8.1%인상' '수매량 1천2백만석 보장'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방삼거리를 지나 여의도 광장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한편 일부 농민들은 대회에 앞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해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모두 연행됐다.

〈최복영 기자〉

도서관 꽹과리 소리 해프닝

국문과, 시청각실서 풍물공연 시도…항의로 무산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학내 장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처의 손용기씨는 지난 2일 오후 도서관으로부터 난데없는 '항의성'전화를 받았다. 박후용 도서관 사서과장이 전화를 걸어 "학생들이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꽹과리를 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왔던 것. 손용기씨는 "죄송하게 됐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보다 앞선 시간 도서관장실에는 공부하던 학생들이 잇따라 방문, 소음을 진정했다. 황용훈 도서관장이 진노를 했고 그 불똥이 애매한 도서관 직원들에게 떨어졌다. 박후용 사서과장 등 직원들이 부랴부랴 시청각실로 달려갔고 학생들이 풍물 공연을 취소하기로 합에 따라 소동은 일단락됐다.

사건은 국문과에서 '민족문학의 밤' 행사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면서 프로그램의 하나인 풍물공연 연습을 한데서 비롯됐다. 손용기씨는 "시청각실은 입지의 복수성으로 학술세미나, 발표회 외의 공연이나 기타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일체의 소음을 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장소를 빌아놓고는 풍물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손용기씨는 "학생들이 '민주'를 외치면서 '비민주적인 작태'를 일삼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황용훈 도서관장과 박후용 사서과장은 "지성인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풍물공연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 정면영 국문과 학생장은 "학생처에 내가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풍물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면영 학생장은 "공연연습을 하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공연을 취소했다"며 "애피소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부풀리기 보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석 기자〉

취재노트

미로속을 헤매는 12·12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고황골 강의실에 버려지고 추락하는 양심들이 늘어난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담배를 피우는 獬형들이 바로 주인인지라, 재를 터는 곳은 창문너머요, 재털이는 창틀이라는데.

獬형들이여! 무용지물 되어가는 휴지통이 안타깝지 않은지요. 추락하는 공중도덕에 날개를 달아아하지 않을까요.

◇…수능시험

출제자 : 김영삼

세금도둑을 없애는 방법은?

(정답자 : 영원히 세금면제)

①세금을 걷지 않는다.

②세금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③원시시대의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돌아간다.

④세금도둑이 없음을 국민들에게 집중교육시킨다.

⑤답이 없음.

◇…허리케인 따돌리기

바람잘날 없었던 민자호에 또다시 거대한 허리케인이 접근하여 노트子 알아보니,

국회법안이라는 허리케인을 통과하기 위해 민자호의 항해사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호쾌하게 내린 결론은 다름아닌 30초에 47개의 쌍랑을 제껴나가는 초고속항해이더라.

허리케인은 확실히 따돌렸지만 현대 항해사에 큰 오점이었던 자유호의 경우를 상기하는 국민 대다수의 겪한 허리케인은 통과할는지 노트子 신히 궁금하오이다.

◇…기다림의 고통

고황골에는 기다림의 고통을 뼈아프게 느끼는 獬형들이 있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많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달랑 단 두대의 복사기만 있어 獬형들의 독서하는 시간보다 복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흘러넘치는 정보를 담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학생들의 자료수집을 위한 도서관이 맞는지 궁금하오이다.

◇…月星之功

요즘 서천골 獬형들 사이에는 螢雪의 공이 아닌 月星의 공을 어렐 수 없이 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민데, 노트子 알아본즉,

애지원 가는길에 가로등 대신 밤 하늘의 별 빛을 벗 삼아 귀가하는 獬형들이 많다하여 생겨난 신조어더라.

노트子 생각컨데, 칠흑같은 밤 별빛만이 흐르는 가로변에 獬형들 모습이 희미하기만 하오.

◇…미범의 성(?)

믿을 수 있나요. YS곰속에서 12.12는 미궁에 빠질 뻔 했단 말.

언젠가 역사가 평가하리란 말 엄청난 평계와 거짓일 뿐이죠.

단독국회를 지나 보치기에 당당이 잠잠해지는 날이 보여.

자 이제 맘대로 해도 괜찮아. 국민도 역사도 눈에 뵈지 않아.

자유롭게 편처진 '세계화' 너무나 소중해 멋대로라면.

◇…칼도 칼나름

똑같은 칼이라도 부엌에 놓인 것과 양상군자가 쥔 칼은 다르게 쓰이는 법이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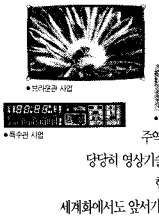
엉마전 12.12판결에 항의하러 간 獬형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범잡으라고 백성이 쥐어준 칼을 엉뚱한 곳에서 휘두르니 노트子 하루하루가 심히 우려스럽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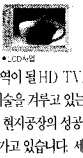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삼성전관을 아시면
세계 1위 기업을 알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첨단기술경쟁시대—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경제전쟁속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기업—
삼성전관입니다. 컬러브라운관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4%를 차지, 세계 1위기업 대열에 당당히 올라선 삼성전관.
어려운 기술환경속에서도 전자산업의 생명은
기술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였습니다. 삼성전관의 기술 도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바이오 브라운관 개발, 와이드 TV용
초평면 브라운관 개발, 차세대 영상기기의
주역이 될 HD TV 브라운관 개발 등으로 세계 일류기업들과
당당히 영상기술을 겨루고 있는 삼성전관— 말레이시아, 독일 등 해외
현지공장의 성공적 운영은 물론 멕시코 진출로 국제화,
세계화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속에 우리를 알리는 초일류기업—
기술로 이룩한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기업—
바로 삼성전관입니다.


●브라운관 사업

●특수관 사업


●LCD사업

BVQI 삼성전관 LCD업계 세계최초, 국제환경규격 BS7750획득!
삼성전관은 제품설계에서 폐기물감량에 이르는 모든 생산과정에 "무해" 사업장을 구현하여 영국의 환경보증원로 BS7750을 획득, 친환경적 우량업체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컬러브라운관 세계 1위—
SAMSUNG
삼성전관